

이홍재의 세상만사



개성공단 폐쇄의 여파가 정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 학부모들에게까지 미칠 줄은 정말 몰랐다. 중·고등학교 입학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내에서 생산되는 브랜드의 교복을 구매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가 아닌 모양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교복 구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공단 폐쇄가 이뤄지며 대부분의 입주 업체들은 북쪽의 공장에서 물품 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엘리트 등 교복 브랜드에 납품하는 업체는 개성공단에 4곳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거의 물량을 가져오지 못했다.

우려되는 '교육 대란'에 딱히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교복 물러 입기'나 '사복 착용 등교 허용' 등이 고작이다. 신학기 학부모들의 사복 구입비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딱한 일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잘한 일일까? 일단 국민 중 절반 이상(55%)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

'뽐때' 한번 보여 준다고 저들이 변할까

다.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잘못한 일'이라고 한 응답자는 33%였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사복 구입비 부담까지 미리 알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 그랬다면 아마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잘한 일로 평가한 응답자 중 25%는 '강경·강경 대응해야 하고 계속 봐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정부 조치를 지지했다. 이번만큼은 북한에 '뽐때'(본때: 본보기)를 보여 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는 셈이다.

개성공단 폐쇄 실효성 의문

전라도 말로 '뽐때를 한번 보여 준다' 함은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따끔한 맛을 보여 준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개성공단 폐쇄라는 '따끔한 맛'을 보고서 다시는 핵실험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인가. 불행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말하자면 개성공단 폐쇄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의 논리와 고충은 이해하지만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연간 약 1억 달러의 현금이 사라진다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북한이라면 문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얼마간 타격을 있겠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혹독한' 제재 효

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개성공단 폐쇄에 '감동'받아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 의문이다." 이는 다른 데도 아닌,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한 신문의 사설이다.

이처럼 제재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 입주 기업들의 손실과 타격은 심각하다. 우선 입주 업체들의 피해 규모가 무려 조 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줄지에 날벼락을 맞은 이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구멍가게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때도 그에 필요한 행정 예고,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수만 명의 생계와 수백 개 업체의 존망이 걸린 결정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입주 업체 대표의 피땀 어린 절규다.

정부가 하루 이틀이라도 먼저 공단을 닫는다고 알려 주었으면 물건이라도 들고 나왔을 텐데, 갑작스러운 통보에 모두들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지원 대책이라도 요란하지만 별 의미가 없다. 지난 2013년 공단이 중단되었을 때 이미 다 겪은 바다. 똑같은 정부고 똑같은 대책이다. 돈을 빌려준다고 하지만 사업을 못하면 갚을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럼 정부는 왜 입주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 주지 않았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 귀환이었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을 최대한 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개성에 투자했던 124개 업체 대표와 임직원들·노동자들·기술자들, 거기에 5000개의 협력업체까지 12만 명의 밤잠이 끊어지게 됐는데, 고작 하시는 말씀이 무사 귀환을 위해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니,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아버지가 대통령 하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긴급조치'란 말이 딸인 당시의 입에서 그야말로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것에서도, 지나친 감성(感傷)일지 모르겠지만 섬뜩함을 느낀다.

게도 구력도 잃고 '통일 쪽박'

개성공단은 북한의 일방적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약 5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한 것을 빼고는 남북 관계의 술한 부침(浮沈)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 왔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에서도 개성공단만큼은 예외였다.

당시 북한의 조치를 비난하며 '예측 가능한 공단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나? 바로 박 대통령 아니었던가. 그랬던 대통령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국제 기준으로도 도저히

유감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는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이번 결정이 단순히 '대통령의 진노 때문'이었을 것이라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레이저 눈빛'을 한번 발사하면 고위관료가 됐든 국회의원도 됐든 모두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는 말이 세간에 퍼들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빨간 줄을 긋고 새로 고쳐 쓴 것으로 알려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성명'에도 "신뢰를 저버린 상대에 대한 분노가 담겼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다.

"진노(震怒)란 '우레 같은 노여움'으로 하느님이나 혹은 과거 임금님의 격노(激怒)를 말할 때 쓰는 단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의 진노 때문에 한 나라의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찌 됐든 하루아침에 '남북 경협'의 마지막 보루는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애써 쌓아 올린 화해와 협력의 '공들'도 한순간에 붕괴됐다. 남북 관계는 얼어붙고, 개성공단 재가동은 이제 요원(遙遠)한 일이 됐다. 게도 잃고 구력도 잃고, '통일 대박'은 커녕 '통일 쪽박'을 차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훗날 역사는 오늘의 이 사태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궁금하다. <주필>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 영화 '귀향' 반응 뜨겁다

이틀만에 24만명 관람 '흥행 1위'

내달 1일 위안부 합의 무효 행사

"참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의 삶에 대해 대중 알기는 했지만 막상 영화로 보니 할말을 잃게 되네요. 그분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5일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귀향'(魂郷)을 상영중인 광주극장에서 만난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귀향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정말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시길.' '그때 못 지켜 드려 죄송해요. 지금은 소녀상을 꼭 지킬게요.' 극장 로비 패널에 적힌 손글씨엔 많은 이들의 염원이 담겼다.

영화 '귀향'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높을데다 3·1절을 앞두고 있어 흥행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귀향'은 개봉 첫날인 24일 15만 40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25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국 507개 스크린

에서 2114회 상영된 '귀향'은 '데드폴'(13만 8057명·상영횟수 3635회)을 제치고 흥행 1위를 기록했다. 좌석 점유율은 42.4%였다. 광주에서는 7963명이 관람, '데드폴'의 4494명을 큰 차이로 눌렀으며 전남에서는 3729명이 관람했다.

25일 오후 6시 현재 예매율에서도 28.2%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예매 건수는 7만5271장으로, 예매 관객을 포함하면 누적 관객은 24만명이며 주말인 27일에는 관객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 예매율은 47.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와 광주극장에서 상영중이다.

단체 관람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극장의 경우 지혜학교, 조선대 소녀상 지키기 모임, 광주여성영화제 후원자들이 단체 관람했다. 서울에서는 최태성 서울 대광고 한국사 교사가 5개관(434석)을 대관, 일반인 관람 행사를 진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귀향'은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 할머니가 미술 심리치료 중에 그린 '태워지는 처녀들'을 모티브 삼아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극영화다. 영화는 제작에 들어간 지 14년만에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다. 7만5000명이 넘는 국민의 후원으로 25억원의 제작비를 마련했고, 손숙 등 배우·제작진의 재능기부로 촬영을 마쳤다.



일본 위안부 문제를 재조명한 영화 '귀향'이 25일 오후 6시 현재 예매 건수 7만 5271장을 포함, 누적 관객 24만명을 기록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귀향이 상영되고 있는 광주극장. /김진수기자 jeans@

한편, 전남도의회는 25일 우승희(영남 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 1일 오후 3

시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광주 시민 행동의 날'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3월 9일 오전 부분일식

10시10분부터 1시간 9분

한국천문연구원(KASI)은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 10분(서울 기준)부터 1시간 9분가량 달이 해를 가리는 부분일식이 일어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부분일식은 날씨가 좋으면 전국에서 관측할 수 있으며 서울에서는 태양 면적의 3.5%가 가려진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부 지역에서는 이날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나지만 국내에서는 부분일식만 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 태양 면적이 8.2% 가려져 가장 많이 가려진 모습을 볼 수 있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가려지는 비율이 낮아져 서울에서는 3.5%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문원은 개기일식 관측을 위해 인도네시아 테르나테섬에 원정 관측팀을 파견, 태양 코로나의 온도 및 속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개기일식 동영상 및 사진을 정해 홈페이지(www.kasi.re.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천문원은 부분일식 관측을 위해 태양을 맨 눈으로 보면 눈이 상할 위험이 있으니 태양 필터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망원경으로 태양을 보면 바로 실명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추천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72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p> <p>대기업 간부 36~67세</p> <p>회사원, 자영업 33~61세</p> <p>무출신 여성 희망 33~48세</p>
<p>여</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여</p> <p>VIP 희망 여성 32~45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p> <p>공무원, 교사 32~54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0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은행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2016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271)	광주교육대학교(1371)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6. 3. 4(금) 09:10(초급반) -금요일 오후반·2016. 3. 4(금) 14: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2016. 3. 5(토) 09:10(초급반)	-월요일 오후반·2016. 3. 7(월) 14:10(초급반) -목요일 오전반·2016. 3. 3(목) 09:00(중급반) -목요일 오후반·2016. 3. 3(목) 14:10(초급반) -토요일 오후반·2016. 3. 5(토) 14:10(초급반)
모집기간	2016. 1. 27(수)~3. 5(토)	2016. 1. 27(수)~3. 5(토)
수업기간	2016. 3. 4(금)~2016. 8.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6. 3. 7(월)~2016. 8.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어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어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간 한자교육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원장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장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0급~사범대학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간 한자교육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원장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장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0급~사범대학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명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선명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면접준비실전과정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